

‘불수능’ 영어·국어 가장 어려웠다... 전체만점자 5명

영어 1등급 절대 평가이후 최저
국어 만점자 작년比 25% 수준

2026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지난해보다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시 과목에서 정답을 모두 맞힌 전체 만점자는 5명(재학생 4명·졸업생 1명)으로 작년(1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1

월13일 지라진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와 4일 공개됐다.
영역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영역은 영어다. 1등급(원점수 90
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3.11%(1만5156명)에 그쳤다.
영어가 2018학년도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24학년도(4.71%)를 밑돌
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등급 비율은 지난해(6.22%)의
절반보다 떨어졌다.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 표준점수)을 보면 국어 영역도 상당히 낮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지난 해(139점)보다 8점이 올랐다.

지난 9월 모의평가(143점)와 비교하면 4점 높고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받았던 2024학년도(150점)보다는 낮다.

독서의 난도가 높았고 일부 문항에서 어려운 지문이 출제됐다. 국어 만점자는 261명으로 지난해

(1055명)의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2025학년도(140점)에 비해 1점 떨어졌다.

그러나 만점자는 780명으로 지난해(1522명)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분점수(등급 컷)는 국어가 133점으로 지난해보다 2점 올랐고 수학은 128점으로 3점 내려갔다.

탐구 영역의 경우 1등급 구분점수가 사회탐구 65~68점, 과학탐구 65~68점, 적정탐구 63~68점이다.

응시자가 많은 생활과윤리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74점으로 작년보다 6점이나 하락했다.

과학탐구에서는 생명과학 I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74점으로 가장 높았다. 물리화학 I, 화학 I, 생명과학 II 등 3개 과목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올랐다.

영역구 기자 vy@seminho.co.kr

여영주 기자 yvi@siminilbo.co.kr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수사 본격화 60명 피해... 전국서 신고 7건 접수

G마켓 “전형적 도용범죄 추정”

G마켓에서 지난 11월 말 이윤자 다자녀에 무단결제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4월 해달 관련 지령의 '집중수사'로 고 경찰청 지령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국에서 접수되는 G마켓 무단결제 관련 신고는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721건로, 피해 금액은 3만~20만원으로 파악된다.

이중 경기 남부권에서 접수된 신고는 모두 약 20만원 상당의 상품이나 무단 구매된 사례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개정을 통해 해결된 소비자 사용 내역과 이들

결과는 중심으로 발명에 사용된 발명과 사자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하는 방침이다.

이 사건은 지난 11월29일 GPO에서 4회 6명에게 비공개 결재가 행해진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알려진 개원할 피해 금액은 대부분 20만원 이하였다.

제임스(장 장송준)가 마켓 대표는 피해 매수시점을 피해 '당사 사자'에서라도 도움이 되려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이번 건은 해외와는 무관한 사기모의와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당사사는 사고 인지 직후인 지난날 29일 20시4분에 연과 연락을 취사 차단되었다. 23시에에는 결재한 후에도 잔액을 계속 조회하여 취사 차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수습했다

수습담당자이자 jim@simjilno.co.kr

수원=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14명 사상 시청역 역주행사고
60대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
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신형차 역주행 사고는 운전자에게
금고형 처벌이 확정됐다.

서울 시범의 역주행 사고로 9명
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사건은 운
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지난 2024년 7월 서울 시범
인간에서 신형차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금
고형 처벌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 1주심 대법관 권영
준은 4월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
원칙 형의 불응에 넘겨진 두 모
씨(이하)에 금고 5년을 선고한 원
심판결을 확정했다.

차치는 2024년 7월 1일 서울 시
험형 인근의 호몰리 주차장에서
차를 돌려 빠져나오다가 역주
행하며 9명 숨진 뒤 5명 부상을
과 차량 두 대를 불태웠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치명다.

1심과 2심 모두 처방 결함에 의한 ‘금갈집’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1심은 금고 5년에 2년외을 가중한 불합당한 판결이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깨고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고는 사회 관습상 하나의 운전행위로 인한 것으로 상상적 결합관계에 있다고 볼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문민홍 기자 mmh@siminilbo.co.kr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직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 감사원을 압수수색 법 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부는 오전부터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해 감사원 운영새신 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에

/연합뉴스

‘파타야 고무통 한국인 살인’ 일당 3명 무기징역등 최종 확정

2명도 징역 30·25년형 유지
관광객 살해후 시신훼손·유기

지난 2024년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일당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

판에 넘겨진 A씨(27), B씨(28), C씨(40)에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5월3일과 타이완에서 30대 한국의 한 관광객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강도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시체를 훼손하고 고무푼에 넣어 저수지에 은닉한 혐의(시체 손괴·시체 은닉)도 있다.

이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해자가 살아있

는 것처럼 속여 고인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법도를 받는다.

1심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10억 빌려주고 17억 뜯은 사채업자들 실태

2명 2심서 각각 '징역 1년' 감형

수백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갈취하고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채업자들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26)의 합소심

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총 2800만원가량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600여 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

에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계약을 맺고, 채무자들에게 상환을 강요하며 불법 추심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6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문미호 기자 mmh@siminilbo.co.kr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변호사 피어 옥중 혼인신고도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 판사)는 4월 거짓 경력과 재력을 과시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20~2021년 동료 수감자였던 B씨로부터 투기금 명목으로 총 10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거짓으로 경력, 학력, 재력 등 배경을 고치했다.
A씨는 대법도 철저히 속은 B씨는 출소 후에도 구치소를 14차례 찾아가 A씨를 집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을 집결했던 변호사 C씨 앞에서도 유령 기업과 실제 시공인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유령에서 C씨와 혼인신고도 하기도 했다.
결수와 부부자 간 밥값으로 맺어졌던 변호사 관계는 거짓말이 얹힌 C씨의 이혼 청구 소송으로 끝났다.

관련·정확한 기사 jcrsro@siminibo.co.kr

주최=정찬남 기자 icrs0@siminilbo.co.kr



중심을 잡습니다
핵심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는 국내외 최대 취재망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균형잡힌 언론의 시작은
언제나 연합뉴스입니다.